

신적인 로고스와 창조의 선함

**The Divine Logos and
the Goodness of Creation**

Arthur. F. Holmes / 이상웅 역



Arthur. F. Holmes

1924년 영국 Dover에서 태어나 영국 공군에 복무한 후(1942~47) 미국으로 귀화하여, Wheaton College(B.A.1950)와 동대학원(M.A.1952)을 졸업하고 Northwestern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Ph.D.1957).

1951년 도교 Wheaton College에서 성경과 철학 담당의 전임강사로 교수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철학과 학과장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Danford 재단 연구 보조금(1955~56), 모교의 “그해의 교사상”과 “공로동창상” 등을 수상하였다. 1977년 가을에는 Eastern College에 체류교수로 있었고, Illinois의 특별 초빙교수로 재직하였다. 또한 미국 철학 협회와 Illinois 철학협회, 기독교 철학자협회의 회원이며, The Reformed Journal의 기고 편집인이며, Faith and Philosophy(1984~6)와 계간지 History of Philosophy(1989~)의 편집자문 위원, 기독교대학 출판부(CUP, 1976~1986)의 편집위원, 고등 기독교 학문연구소의 이사, 기독교 대학연합회 조정자(coordinator)등으로 봉사하였다.

Abstract

In its interaction with pagan thought, the early church particularly appreciated Plato. The Gnostic claim that matter is evil was answered by the Stoic logos concept and Plato's theory of forms, both of which affirmed a rational order. Tertullian preferred the Stoic view and adopted their materialist theory of the soul, but Justin Martyr and the Alexandrian fathers found the Middle Platonism more congenial. It identified Plato's Demiurge with the Stoic Logos, and made the Logos the highest emanation from Plato's Good, thereby providing a possible model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hrist, and unwittingly setting the stage for the Arian controversy.

So impressed were the church fathers with thinkers like Plato that they wondered how pagans could know so much. The Logos doctrine again helped, for the Logos is both the orderer of creation and the source of all knowledge. So all truth is ultimately God's truth, no matter where it is found.

신약시대 이래로 기독교와 회람철학은 계속적인 관계를 가졌었다. 아테네에서 Stoa 학파와 Epicurus 학파의 문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토아 철인 클레안테스(Cleanthes : B.C. 233)의 「제우스 송가」(Hymn to Zeus)를 한 분 신적 창조자에 대한 증언으로 인용하였다.¹⁾ 바울 서신들과 요한 서신들은 당대의 철학적 관념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 준다. 그리고 첫 삼세기간의 교회 교부들은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이 교도 작가들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철학자들과 시인들에게서 수용할 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특히 플라톤(Platon : B.C. 427~347)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특별히 윤리학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확실히 플라톤 뿐만 아니라 스토아 학파도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시되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 예컨대 스스로 철학자형의 전도자로 여겼던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 165년 경에 순교)은 - 영혼은 선천적으로 불멸하는 것이며 환생의 주기들에 종속된다는 플라톤의 관념은 경멸했지만 - 이 우주가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에 의존하는 바 초월적이며 비물질적이며 불변하는 신에 대한 플라톤의 관념과 인간 영혼은 신처럼 이성적인 존재라는 그의 신념에 대해서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 비슷하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215년경 사망)는 신이 한 분이며,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관조하고 닮기를 추구해야 할 분으로 여긴 것에 대해 플라톤을 칭송하였다. 오리겐(Origen: 클레멘트의 수제자로 253년 경에 죽음) 역시 창조자의 善性(goodness)과 초월성(transcendence), 물질적 세계의 선함과 영혼의 정화 필요성에 대한 플라톤의 신념을 언급하였다. 그후에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 제 8권에서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신이 창조물의 존재 원인이며, 진리의 빛의 원천이고, 생명(생물)이 신을 모방함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조절될 수 있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영혼의 비물질성(immateriality)과 불

1) 행 17:16~34.

멸성(immortality)을 단언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다른 이교 철학자들보다 정당하게 선호될 만하다.²⁾

왜 그들이 플라톤의 사상 중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뽑아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라 분명히 견줄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 왜냐하면 2세기와 3세기에조차도 신학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지주의(Gnosticism)가 어떻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위협했는지도 알아야만 한다. 영지주의의 초기 암시는 신약에 나타난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다양한 권세들과 우주정신들 숭배와 결부된 금욕주의를 언급한다. 다른 곳에서 결혼을 금하는 금욕주의자들에게,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옹수하고(딤후전 4:34)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딤후전 6:20)에 대해 경고한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고 주장함으로써 반론하였다. 영지주의는 가끔 유대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배음(overtone)도 지닌, 회람사상과 동방사상의 하나의 혼합물이다. 그것의 전형적인 주장에 따르면, 신은 전적으로 초월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자이고, 천상적인 존재들과 인간 영혼들을 포함하는 영들과 권능들의 위계질서적 존재가 그로부터 유출된다. 그 중 한 권능이 교만하여 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처 날뛰며 어떤 비극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물질세계가 생기게 하였다. 물질은 어두움의 권능들에 의해 지배되고 따라서 악이라는 하나의 영육이원론(dualism)이 결과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지 않으며, 세계는 선하지 않고, 인간은 다른 별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금욕적인 훈련으로 그것의 유혹들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세계 속에서 무지로 정죄되었다. 존재하는 탈출의 소망이란 것은 진리의 빛을 발하여 인간 마음으로부터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실 미지의 신에 대한 심원한

2) A.H. Armstrong, *The Cambridge History of Later Greek and Early Medieval Philosophy* (CUP, 1967)에서 인용되어 있고 회람철학에 옹수했던 다른 기독교인의 경우도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밀들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인 영지(gnosis 그노시스)를 영지주의적인 종교는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했다.³⁾

창조물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를 위협하였다. 만약 물질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선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수가 없고 기껏해야 단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취하신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현설(docetic view)은 논박되어야만 했다. 더욱이 물질이 악이라면, 금욕 고행은 필요한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일 수가 없고, 자연의 풍요로운 소산물도 향유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없다. 문화의 혜택도 역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탈출이 비밀한 지식을 얻는 데에 있다면,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식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복음이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서,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은 유용해 보였다. 명백히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of Ephesus : c.a. B.C.544~484)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스토이즘은 우주는 이성적인 법인 신적 로고스에 의해 주관되고, 로고스의 씨들(종자이성, logoi spermatikoi)이 모든 생물에 생기를 주고 지배하며, 인간에게 이성적인 영혼들을 수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며, 유출되는 영들의 위계질서를 통해서만 이 세계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고 클레안테스가 말했던 것과 같이 그는 우리들 누구로부터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는 만물과 (로고스의) 씨(a seed)이며 신적인 심판인 인간의 영혼이라는 유형적인 존재 속에 내주하는 영원히 살아 있는 로고스이다. 이러한 스토아적 범신론은 영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신을 이성적이고 선한 것으로 세계와 인간의 몸도 역시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물질은 악한 것도 미쳐서 날뛰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다.

3) 고대 영지주의에 관하여는 Kurth Rudolph, *Gnosis*, transl. R. M. Wilson (Harper & Row, 1983); 과 Gilles Quispel, “Gnosticism”, *Ency. of Religion*, ed., Mircea Eliade (Macmillan, 1987), vol. V, pp. 566~574.

이것(스토이즘)은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을 매료시켰는데, 그가 영지주의와 그 산물인 가현설과 고투하고 있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천지의 조성자로서의 한 분 하나님과 따라서 창조물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토이즘이 주장하는 대로 이성적인 영혼 역시 물질적인 것이라면 물질적인 사물들이 그 자체로(per se) 악인 것은 아니다. 터툴리안은 각 개인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기에 유성생식(sexual reproduction)을 통해 자손들에게 전해진다는 스토이즘의 유전설을 받아들였다. 만약 섹스가 이성적인 영혼을 출생케 하는 것이라면 섹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따라서 결혼도 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질이 악하다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금욕적인 고행주의를 받아들였던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스토아 신념들의 채용에 의해 단 일격에 극복되었다.⁴⁾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가치를 실재의 로고스 구조 속에서 정초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매력적인 응수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부들이 기꺼이 지 불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다른 교부들은 한 초월적인 신과 영혼의 비물질성에 대한 플라톤의 언명을 더 선호하였다. 플라톤의 신인 데미우르고스(Demiurgos)는 영원한 형상들(이데아들)을 본따서 선한 목적을 향해 창조를 질서 지웠고, 창조물은 한 세계 영혼의 내주에 의해서 생기를 얻고 주관된다. 그러므로 물질세계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선한 것이며, 영혼의 진보는 영원한 형상(이데아들)과 신을 관조함에 의해서 가능하다. 가치들이 다시금 실재하는 것들 속에서 정초된다.

그러나 초기의 기독교 작가들은 단순히 회랍인들로부터 유용한 관념들을 선별하여 모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 이교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고심하였다. “그 철학자들이 신을 결코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에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신에 대해 바르게 사변하고 참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저스틴이 물었다.⁵⁾ 이러한 표현은 요

4) 터툴리안의 *Against Marcion*(마르시온 반박)과 *Treatise on the Soul*(영혼론)을 보라.

5) *Dialog with Trypho*, iv.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첫 응답은 “하나님은 플라톤이 확인

한일서로부터 위에서 인용했었던 그 말들(1:1의 말씀)에 대해 명백하게 빚낸 것이다. “어떻게 성육신 하신 로고스를 보지도 듣지도 만져 보지도 못한 자들이 신에 관한 진리를 공언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스스로 “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와 조성자는 지금까지 찾은 바 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를 발견하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를 말로 알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다.”고 하였다.⁶⁾

저스틴은 플라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모세에 대해 배웠고, 그로부터 빌어썼지만, 독약이 두려워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응답했다.⁷⁾ 비슷하게 클레멘트는 플라톤이 회교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겼던 히브리인들에게서 배웠다고 제시하였다.⁸⁾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숙고하면서 재빠르게 플라톤이 애굽에 머문 것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후의 일이었고 (최소한 150년 뒤였다- 역자 주) 구약의 회교인 번역본인 셉투아진트(Septuagint 혹은 70인역이라 불림. LXX)를 읽었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플라톤이 유대교로부터 빌어썼다는 가설은 너무나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했던 말인가?

이에 대한 다른 설명이 교부 저작 속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초두에 나타나는 로고스에 대한 요한의 진술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⁹⁾ - 에 호소하는 것이다. 저스틴은 플라톤이나

했던 것처럼 지성만으로 지각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6) *Timaues*, 28., 클레멘트도 동의했는데 그의 *Exhortations to the Greeks*, vi. 59.를 보라.
- 7) *Hortatory Address to the Greeks*, xxii~xxviii; *First Apology*, lix~1x.
- 8) *Exhortation to the Greeks*, vi. 60.
- 9) 요 1:1~4, 9, 히 1:1~3, 10~12 요한의 로고스와 그것의 유대교적-초기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J. D. G.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Westminster Press, 1980), ch. VII.을 보라.

그와 같은 다른 회랍인들이 그 파생된 신적인 말씀(로고스)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속에 불어 넣어져 심겨진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희미한 빛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¹⁰⁾ 그들은 단지 진리의 씨앗만 가졌고 전체적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이해는 확실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과 그들이 모순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클레멘토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인 형상들이기에 이교작가 속에 있는 진리의 섬광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다.¹¹⁾ 오리겐 역시 이교도들이 지적한 진리를 신적인 로고스에 의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진 보편적 이데아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 철학이란 것은 사실상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들 속에 있는 진리의 씨앗들은 그것이 떨어져 나온 그 로고스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로 재결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지식의 무반성적 수용을 낳았지만, 기독교는 회랍인들의 철학과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적절하게 평가하였다. 어디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는지 간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¹³⁾

그러나 교회 교부들은 요한복음의 착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 지식의 로고스로서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고 만물 안에 계속하여 내주하시는 창조의 로고스로서도 역시 이해하였다. 터툴리안을 포함한 교회 교부들이 재빠르게 인정했던 바대로, 이러한 사실들에 관하여 스토아주의자들이 조금은

10) *First Apology*, xlii; *Second Apology*, xiii.

11) *Exhortation to the Greek*, i.6; xii.93.

12) *Contra Celsum*, Liv. 3; *De Principiis*, lli.

13) (역자 주) 이 명제는 칼빈의 디도서 1:12 주석에서 분명하게 진술되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에(속한 것이기에) 만약 어떤 불경건한 자가 어떤 참된 것을 말한다해도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영어번역판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10. p.364./ 라틴어 원문은 *Opera Calvini*, 52., 1895년, col.415 “*Omnis veritas a Deo sit*”)

바르게 파악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단지 오류와 섞여진 진리의 씨앗들만 가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로고스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정도로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창조가 선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 창조의 로고스가 성육신 속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스토아주의와 플라톤주의의 양자에서 교부들이 간파했던 불완전한 요소들은 그들로 하여금 선악의 근거에 대해서 회랍인들이 기껏 성취한 것보다 더 만족할만하게 다름으로써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회랍철학과 구별지워주는 하나님과 로고스에 대한 교리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회랍적 로고스로부터 기독교적 로고스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 작가들이 매우 친숙했던 중기 플라톤주의를 더욱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⁴⁾ 다양하고 절충적인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것은 첫 세기에 재생되었던 이교적인 회랍 로마 종교를 철학적으로 정당화 해 주었다. 물론 플라톤의 신(일자 또는 선)은 매우 떨어져 있고 초월적인 것이었으며, 플라톤 자신은 이 세계의 사물들이 어떻게 영원한 형상들 - 이 형상들은 신적인 조성자에게 원형(archetypes)의 구실을 했다 - 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문제 삼았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전통적인 신들을 대개적인 존재들의 위계질서에 속한 것으로서 신적이고 우주적인 경륜에 필요한 대리인으로서 대우하였다. 그들은 플라톤의 티마에우스(Timaeus)편에 나오는 데미우르고스(Demiurgos)를 모든 영원한 형상들이 그 안에 거하는 누우스(Nous = the Mind)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와 동일시 함으로서 보존하였다. 플라톤의 세계 영혼에 관하여는, 비록 그들 중의 몇몇은 그것이 창조에 있어서 능동적인 작인(作者, active agent)이라고 여겼던 플라톤에 동의했지만 대체로 덜 명확했다. 그러므로 두번째 신(deuteros theos)으로 알려진 그 로고스와 함께 일종의 신적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자와 누우스만 합리적이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단자(Monad)라고 칭하였다.

14) John Dillon, *The Middle Platonists* (Cornell Univ. Press, 1977); 과 A.H. Armstrong 앞의 책 I부를 보라.

페라스(peras:제한자)와 아페이론(apeiron: 무한자)이라는 피타고라스적 이원론 - 플라톤의 이원론과 동등하게 - 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세계 영혼을 아페이론과 동등시 했는데 그것은 질서가 부과되어야만 하는 무형의 용기이다. 물질 그 자체는 혼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므로 오로지 형상과 이성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금욕적인 경향이 발전되나 일차적으로 강조점은 불변하는 형상들에 대한 관조와 신을 모방함에 내려졌다.

그리스도인들을 매료시켰던 중기 플라톤주의의 두드러진 주제는 한 영원한 삼위일체 안에서 신적인 로고스였다.¹⁵⁾ 이것은 한 초월적인 신과 그의 창조물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하는데, 창조물을 합리적으로 질서지우는 것은 신 자신이다. 우주적인 로고스의 유형적인 씨들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스토아적 견해는 모든 유한한 것들 속에 내주하는 형상들로서의 로고스들에 대한 보다 중요한 플라톤적 피타고라스적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그 로고스에 의해서 세계와 이성적인 영혼 둘 다는 신적인 누우스 또는 로고스 안에 있는 영원한 원형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인간 지식과 창조 양자의 로고스이다.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Philo)는 로고스가 최고의 매개자인 그런 매개자의 위계질서를 도입하면서 한 초월적인 신과 그의 창조물 사이에 있는 현격한 차이 때문에 고심하였다. 신은 선하고 처음에는 그 자신의 마음에 형상들을 창조한 단자(the Monad)이며, 감각할 수 있는 세계는 그것들의 본을 따라 지어졌다. 로고스는 그러한 형상들의 총합이고 신적인 지혜이며, 신에 의해서 배태된 하나의 전체적이고 이성적인 질서이며 이제는 플라톤의 세계영혼과 똑같이 창조물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은 신으로서 아름다운 모사품이 아름다운 본 없이는 결코 산출될 수 없고, 원형적이고 지성적인 이데아를 본떠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감각 대상들

15) 중기 플라톤주의는 역시 줄리앙 황제에 의해 기독교에 대한 헬라적 대체물로 장려됨으로 삼세기에 재생되었던 플로티누스(Plotinus)의 신플라톤주의에 이르렀다. 암모니우스 사카스(Ammonius Saccas)는 한때 알렉산드리아 기독교교리학교의 활동적인 멤버였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리겐과 아리우스의 동시대인이다.

이 흠잡을 데 없는 것일 수가 없다고 미리 규정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 거
전적인 세계를 창조하려고 뜻하였을 때, 완전히 신을 닮고 비유형적인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성적인 세계를 만들었다.”¹⁶⁾

티툴리안이 스토아 학파를 반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철학자들조차도 로고스(말씀; 이성)가 만물의 조성자인 것처럼 보인다고 동의한다. 스토아 학파의 제논은 이 로고스를 어떤 배열을 따라서 만물을 조성한 조성자로 정의 내리고, 이 동일한 로고스가 운명의 여신, 신, 주피터의 마음(지성) 그리고 만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클레안테스는 이 모든 설명을 그에 따르면 우주에 충만히 퍼져 있는 영과 결합시켰다. 더욱이 우리 역시도 영을 그것의 적절한 본질(실체)로서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얘기 했었던 바로 그 말씀(Word), 이성(Reason) 그리고 능력(Power)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⁷⁾

그러나 티툴리안은 필로를 본받아서 로고스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이전의 로고스와 창조물 안에 내주하는 능력으로서의 로고스로 구분하는 두 단계 로고스론을 받아들였다.¹⁸⁾

그러나 저스틴은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 안에서 무형의 물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단언하고, 또한 하나님은 일자이시다고 한 플라톤의 말을 만족스럽게 여김으로 플라톤주의자들을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고 정돈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하였다.¹⁹⁾ 클레멘트의 플라톤주의 역시 창조는 전우주가 조화 속에 있도록

16) Philo of Alexandria; *The Contemplative Life, the Giants, and Selections*, transl. D. Winston (Paulist Press, 1981), p.99. Cp. E. R. Goodenough, *An Introduction to Philo Judaeus* (Blackwell, 1962); H. A. Wolfson, *Philo*(2 vols, Harvard Univ. Press, 1948), and Henry Chadwick, ch. 8 in A. H. Armstrong, *op. cit.*, ch. 8.

17) *Apology*, xxi. 10.

18) *Against Praxeas*, vi. Cp.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Church Fathers*, I.45, 73 ~4.

19) *First Apology*, xx. Cp. *Apol.* x.; *Exhortation to the Greeks*, xxii.

하기 위해 요소들의 불일치를 조화 속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 함으로 두드러지고 또한 그는 “로고스 아버지인 누우스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²¹⁾ 오리겐(Orig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거대한 것들에 명령을 내려 그것들이 창조되었고 그 명령을 받은 분이 신적인 로고스였다.²²⁾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기에, 물질의 영원성과 창조되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반대하였다.²³⁾

그렇다면 로고스는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이 제안한 대로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데 있어 신의 대리자이다. 그러나 이의들이 제기되었다. 저스틴이나 클레멘트도 받아들였던 필로와 터툴리안의 두 단계 로고스는 오리겐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창조 전에는 로고스가 단지 지혜의 총합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였고, 창조시에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발해진 말씀(a spoken Word)처럼 세계에 발해짐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물질 그 자체는 혼돈스러운 것이고, 물질적인 창조물에 고유한 가치는 결국 하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로고스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지도 완전히 신적일 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의 창조된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플라톤의 일자에 대한 로고스의 모호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로 옮겨졌고, 초대교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기독교적인 논쟁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하였다. 첫째로, 두 단계 로고스 이론은 플라톤에 의해 암시되고 필로에게서 명시되고, 터툴리안, 저스틴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로고스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레네우스와 오리겐은 로고스는 영원부터 나신 분이라고 주장으로써 일단계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우세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두번째 문제가 제기되었다. -- 로고스의 영원한 나심(산출)이 암모니우스 삭카스와 후기 신 플라톤주의자들이 취했

20) *Exhortation to the Greeks*, i; *Stromateis*, iv.

22) *Contra Celsum*, II. 31.

23) *On First Principles*, I. 3.

던 입장처럼 신적인 존재의 필연적인 유출(넘쳐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한 행위인지. 아리우스(Arius: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부인했던 니케아 회의의 유명한 이단 - 역자 주)는 그가 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그 결과로 생긴 소위 아리우스 논쟁(Arian Controversy)은 로고스가 하나의 유출물이라고 하든 파생된 창조물이라고 하든 두 가지 경우가 다 로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종속적인 존재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침내 교회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했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해답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필요로 했고 어떤 점에서 결핍된 자이기에 로고스의 산출이 필연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의지의 행위였다고 설명하는 것에 제3의 대안을 마련해 주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산출적이지 않다. 로고스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이다. 니케아 신조가 고백한 대로 로고스는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창조된 자가 아니고 나신 자이시며, 아버지와 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러하기에 사실상 기독교적 논쟁은 물질세계가 악이나 아니냐에 대한 논의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는 혼돈된 세계를 질서지을 수 없기에 로고스가 산출된 것이나 창조된 것이라면, 영지주의는 본질적으로 옳으며 선은 사물의 본성 속에서는 고유한 근거를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 로고스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며, 그가 선재하고 다루기 힘든 물질을 형성함으로써라기 보다 무로부터(ex nihilo) 전 창조물을 존재케 했다면, 전 창조물과 심지어 물질조차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증거하고 그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이제 그것을 이원론, 범신론 그리고 유신론이라고 특징지우면 - 의 하나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원론자들은 물질은 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질서와 통제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창조된 것은 아니다는 영지주의적 말투(strain)를 되풀이 한다. 범신론자들은 물질세계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신적인 존재 - 본질적으로는 그것과 하나인데 - 로부터 유출된 것

이라고 이해했던 스토아주의자들과 신플라톤주의자들을 따른다. 다른 한편으로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자연과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행위에 의해서 질서뿐만 아니라 존재도 가지게 된다. 이원론자의 경우 자연은 물질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범신론자는 악을 유한한 사물 안에 있는 필연적인 결핍으로 또는 그것들의 유한성에 원래부터 붙어 있는 피할 수 없는 결핍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신론자의 경우, 하나님이 존재를 주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이 물질적 존재와 이성적인 질서라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밀당치부터 잘라 내어버리는 것이고, 무로부터의 창조는 악이 모든 유한한 존재 안에 내재하는 필연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선구자들이 채용했던 것과 같은 로고스 교리의 맥락 속에서 어거스틴이 더욱 더 완전하게 설명했던 것과 같은 선택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위한 길이 열려진다.

●역자 이상웅 형제는 계명대학교 철학과(B.A.)를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에 재학 중이며, 1990년 8월부터 대구 봉산교회 교육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다.

The Divine Logos and the Goodness of Creation

From New Testament times onward, Christianity and Greek philosophy came into repeated contact. The apostle Paul, addressing an audience of Stoics and Epicureans in Athens, cited the Stoic philosopher Cleanthes's *Hymn to Zeus* as testimony to a divine Creator.¹⁾ Both his letters and those of John reveal that Christians were interacting with current philosophical ideas; and the church fathers of the first three centuries not only cite pagan writers whom they think support their belief in one god, but they also note what in those philosophers and poets deserves acceptance and what does not.

Plato in particular was positively regarded: not only Plato, to be sure, but the Stoics to some extent also, especially on matters of ethics. But Plato receives the most widespread praise. Justin Martyr, for instance, himself a philosopher-turned-evangelist, applauds Plato's idea of a transcendent, incorporeal and unchanging God by whom this cosmos was created and on whom it depends, and the belief that the soul is a rational being, like God; this despite Plato's notion that the soul is inherently immortal and subject to cycles of reincarnation. In similar fashion, Clement of Alexandria praises Plato for seeing that God is One, the creator who gave order

1) Acts 17:16~34.

to the cosmos, whom we should contemplate and seek to be like.

Origen also refers to Plato's belief in the goodness and transcendence of the creator, the goodness of the material world and the soul's need for purification. Augustine subsequently sums it up with an extended discussion in book VIII of his *City of God*: Plato is justly to be preferred to all the other philosophers because he says God is the cause of the creation's existence, the source of the light of truth, the end in reference to which life is to be regulated by the imitation of God, and because he affirmed the immateriality and immortality of the soul.²⁾

To see why they singled out these features of Plato's thought, we have not only to recognize the obvious parallels to Christian theology — for theology was still at a very formative stage in the second and even the third century — but also to see how Gnosticism threatened the Christians of that day. Early hints of it appear in the New Testament. In his Colossian letter, Paul refers to the asceticism associated with the worship of various "powers" and "spirits of the universe". Elsewhere, to ascetics who forbade marriage, he responds that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he warns against "the godless chatter and contradictions of what is falsely called knowledge."³⁾ John argues against those who denied

2) A.H. Armstrong cites these and other Christian responses to Greek philosoph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Later Greek and Early Medieval Philosophy* (Cambridge Univ. Press, 1967).

3) I Timothy 6:20, RSV.

that Christ “came in the flesh” by claiming “we have heard . . . seen with our eyes . . . looked upon and touched with our hands”, the living Logos.⁴⁾

Gnosticism was a mixture of Greek and Eastern ideas, sometimes with Jewish or Christian overtones. According to a typical version of it, God is utterly transcendent and unknown, but there emanates from him a hierarchy of spirits and powers that include both angelic beings and human souls. One such power, out of *hybris*, asserted its independence of God, ran amok and formed the material world by some tragic accident. A dualism of spirit and matter resulted, with matter ruled by the powers of darkness and therefore evil. So God is not creator of all, the world is not good, and human beings are trapped in an alien sphere, condemned to ignorance in a darkened world where all we can do is avoid its enticements with ascetic discipline. What hope of escape exists lies in discovering esoteric secrets about the unknown God, which will shed the light of truth and dispel the darkness of ignorance from the human mind. This secret knowledge, *gnosis*, Gnostic religion purported to offer its devotees.⁵⁾

The Gnostics claim that creation is devoid of value threatened Christianity on many fronts. If matter is evil, not good, then a transcendent God who is altogether good could not incarnate

4) I John 1:1~2, RSV.

5) On ancient Gnosticism, see Kurt Rudolph, *Gnosis*, transl. R. M. Wilson (Harper and Row, 1983); and Gilles Quispel, “Gnosticism”, *Enc. of Religion*, ed., Mircea Eliade (Macmillan, 1987), vol. V, pp. 566~574.

himself in human flesh; at best Christ only **appeared** to have a body. This “docetic” view of Christ had to be contested. If matter is evil, moreover, then asceticism is required and marriage could not be ordained by God, nor are the riches of nature’s harvest the gifts of God to be enjoyed. The benefits of culture should also be spurned. And if escape lies in securing the secret *gnosis*, then salvation is gained by knowledge, not by faith. This was a very different gospel from what the apostles preached.

In the face of this threat, the Stoics and Plato looked good. Stoicism, apparently building on Heraclitus, asserted that the cosmos is governed by a rational law, the divine logos, and that seeds of the logos, *logoi spermatikoi*, enliven and govern every living thing and provide human beings with rational souls. God then is not remote and transcendent, related to this world only via a hierarchy of emanating spirits; he is not far from any of us: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Cleanthes said. He is the ever-living Logos, immanent in everything, a corporeal being of which the human soul is itself a seed, a divine spark. This Stoic pantheism, contrasted with Gnostic dualism, sees God as rational and good, the world too, and the human body. Matter is not evil, running amok, but good.

This appealed to the church father Tertullian, struggling as he was with Gnosticism and its Docetist outcome, for it enabled him to affirm one God as maker of heaven and earth, hence the goodness of all creation. Moreover, if the rational soul too is corporeal, as Stoics

held, then corporeal things are not *per se* evil. Tertullian adopted their “traducian” theory that each individual’s soul, being corporeal, is transmitted in sexual reproduction. If sex brings the rational soul to birth, then sex must be of God: it is not evil but good, and so then is marriage. Consequently Gnostic dualism in which matter is evil, the Incarnation is denied and asceticism embraced, is overcome with one stroke by the adoption of Stoic beliefs.⁶⁾

This was no doubt an attractive way of responding to Gnosticism for it grounds values in the Logos-structure of reality, but the price was more than other church fathers were willing to pay. They preferred Plato’s account of a transcendent God and the immateriality of the soul, which we saw in chapter two. Plato’s God, the Demiurge, ordered the creation for good ends on the pattern of eternal forms, and the creation is enlivened and governed by the immanence of a World Soul. The material world, therefore, is not itself evil, but rationally formed and good,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ul is possible by contemplation of the eternal forms and of God. Values again are grounded in the real.

But early Christian writers were not satisfied simply to cull helpful ideas from the Greeks. They puzzled over how these pagans came to know so much. As Justin Martyr asked, “How can the philosophers speculate correctly or speak truly of God, when they have no knowledge of him, since they have never seen or heard him?”⁷⁾ The language here is a patent allusion to the words cited above

6) See Tertullian’s *Against Marcion* and *Treatise on the Soul*.

7) *Dialog with Trypho*, IV. His initial response to the question is that God is “to

from the apostle John's first letter: how can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eard and touched the incarnate Logos declare the truth about God? Plato himself observed that "the father and maker of all this universe is past finding out, and even if we found him, to tell him to all men would be impossible"⁸⁾

Justin replies that Plato borrowed from Moses, having learned of him while in Egypt, but then disguised the truth for fear of the hemlock.⁹⁾ Clement similarly suggests that Plato learned from those "wiser than the Greeks", in this case the Hebrews who honor the immortal God.¹⁰⁾ Augustine considers whether Plato might have met Jeremiah in Egypt, but he quickly realized that Plato was there much later than Jeremiah and too early to have read the Septuagint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So the hypothesis that Plato borrowed from Judaism seemed to have little if any basis. How then did he discover the truth?

Another explanation appears in the patristic writings, one which appeals to John's statements about the Logos at the outset of his gospel: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be perceived by the mind alone, as Plato affirms".

8) *Timaeus*, 28, Clement agreed: see his *Exhortation to the Greeks*, vi. 59.

9) *Hortatory Address to the Greeks*, x x || ~ x x viii; *First Apology*, 1 | x ~ 1 x.

10) *Exhortation to the Greeks*, vi. 60.

any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the true light that enlightens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¹¹⁾

Justin Martyr asserts that Plato and others like him, through their "participation of the seminal Divine Word" and "by means of the engrafted seed of the Word which was implanted in them, had a dim glimpse of the truth".¹²⁾ Their understanding was certainly incomplete and sometimes they contradict what Christians believe, for they have only seeds of truth and do not know the whole Logos Jesus Christ. So also Clement: the glimpses of truth in pagan writers point to Christ the Logos, for we are "rational images formed by God's Word".¹³⁾ Origen too ascribes the truth that pagans perceive to universal ideas implanted in the souls of all men by the Divine Logos.¹⁴⁾ Philosophy in fact was to the Greeks what the law was for Jews: it prepared them for Christ. So the seeds of truth in the philosophers belong also to Christians, who can reunite them to the whole truth about the Logos from which they were torn.

Whereas Gnosticism produced an unreflective acceptance of the secret gnosis, Christianity properly values the truth it finds in the philosophy and culture of the Greeks. All truth is God's truth no

11) John 1:1~4, 9, Cp. Hebrews 1:1~3, 10~12. On John's Logos and its Jewish and pre-Christian background see J.D.G. Dunn, *Christology in the Making* (Westminster Press, 1980), ch. V.

12) *First Apology*, x lvi; *Second Apology*, x iii.

13) *Exhortation to the Greek*, I. 6; X || 93.

14) *Contra Celsum*, I. iv. 3; *De Principiis*, I. ||.

matter where it is found.

But the church fathers, following the suggestion in John's gospel, see Christ not only as the Logos of all human knowledge but also as the Logos of creation by whom all things were made, and who remains immanent in everything. This they are all quick to admit, Tertullian included, as something the Stoics rightly saw, and yet imperfectly so and incompletely, for the Stoics did not know the whole Logos, having only the seeds of truth commingled with error. Yet it is nonetheless because the Logos of Creation is revealed in the Incarnation that we affirm creation is good, contrary to the Gnostics. The inadequacies the fathers saw in both Stoicism and Platonism led them to doctrines about God and the Logos which have distinguished Christianity from Greek philosophy to this day, claiming a more satisfactory treatment of the basis for both good and evil than the Greeks at their best achieved.

What then distinguished the Christian from the Greek Logos? To get at this, we need to look more closely at the Middle Platonism with which those Christian writers were well acquainted.¹⁵⁾ A varied and eclectic movement, it provided philosophical justification for the pagan Greek and Roman religion which had been undergoing a first-century revival. Plato's God, the One or Good, was of course very remote and transcendent, and Plato himself had problems explaining how things in this world could participate in the eternal

15) See John Dillon, *The Middle Platonists* (Cornell Univ. Press, 1977); and A.H. Armstrong *op.cit.*, part I.

forms which served as archetypes for the Divine Maker. Middle Platonism treated the traditional gods as belonging to a hierarchy of intermediary beings, necessary agents in both the divine and the cosmic economy. They retained the Demiurge of Plato's *Timaeus*, equating him with the Mind(*Nous*) in which all the eternal forms resided, and identified this with the Stoic *Logos*. About Plato's World Soul they were less clear, although some of them agreed with Plato that it was the active agent in creation, A kind of divine trinity therefore emerged, with the Logos known as *deuteros theos* (second god).

Others accepted as rational and good only the One and the Nous, calling it the Monad. Influenced by the Pythagorean dualism of *peras* (form) and the *apeiron* (formlessness), they equated World Soul with *apeiron* and with Plato's Dyad, that formless receptacle on which order had to be imposed. Since matter itself is chaotic and therefore the source of evil, only form and reason can save us. Ascetic tendencies developed, but primarily an emphasis on the contemplation of unchanging forms and the imitation of God.

The salient Middle Platonist theme which attracted Christians was the divine Logos within an eternal trinity.¹⁶⁾ This provides the

16) Middle Platonism led also to the Neoplatonism of Plotinus, a third century revival of Platonism supported by the Emperor Julian as a Hellenic substitute for Christianity. Ammonius Saccas, the Alexandrian from whose work it derived, was at one time an active member of the Alexandrian Christian school and reportedly a contemporary of both Origen and Arius.

needed link between a transcendent God and his creation, one which ascribes to God himself the rational ordering of creation. It involved changing the Stoic view that corporeal seeds of the cosmic Logos govern nature into a more Platonic or Pythagorean view of logoi as forms immanent in all finite things; thereby both the world and rational souls participate in eternal archetypes in the divine Nous or Logos. Christ is then the Logos both of human knowledge and of creation.

The first century Alexandrian Jew, Philo, had puzzled over the gulf between a transcendent God and his creation, introducing a hierarchy of intermediaries of whom the Logos is the highest. God is good, the Monad who first creates the forms within his own mind, and then the sensible world made on their pattern. The Logos is the totality of those forms, the divine wisdom, an overall rational order conceived by God and now operative in creation much like Plato's World Soul.

For God, being God, pledged in advance that a beautiful copy would never be produced except from a beautiful pattern and that no sense object would be irreproachable that was not modelled after an archetypal and intelligible idea. So when he willed to create this visible world, he first formed the intelligible world, so that he might employ a pattern completely Godlike and incorporeal.¹⁷⁾

17) Philo of Alexandria; *The Contemplative Life, the Giants, and Selections*, transl. D. Winston (Paulist Press, 1981), p.99. Cp. E. R. Goodenough, *An Introduction*

Tertullian echoed the Stoics.

Even your own philosophers agree that the Logos, that is, Word and Reason, seems to be the maker of the universe. This Logos Zeno [the Stoic] defines as the maker who formed everything according to a certain arrangement, the same Logos (he says) is called Destiny, God, the Mind of Jupiter, and the inevitable Fate of all things. Cleanthes combines all these predicates with Spirit which, according to him, permeate, the Universe. Moreover, we too ascribe Spirit as its proper substance to that Word, Reason and Power by which, as we have said God made everything.¹⁸⁾

But Tertullian accepts the idea of a two-stage Logos akin to Philo's, the Logos before creation as the wisdom of God and the Logos as the immanent power within creation.¹⁹⁾

Justin Martyr, however, follows the Platonists when he asserts that God created everything in his goodness out of shapeless matter, and he speaks approvingly of Plato's saying that God is the One. He admits that "when we say that God created and arranged all things in this world, we seem to repeat the teachings of Plato."²⁰⁾ Clement's

to Philo Judaeus (Blackwell, 1962); H. A. Wolfson, *Philo* (2 vols, Harvard Univ. Press, 1948), and Henry Chadwick, ch. 8 in A. H. Armstrong, *op. cit.*, ch. 8.

18) *Apology*, XXII . 10.

19) *Against Praxeas*, VI. Cp. H.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Church Fathers*, I. 45, 73~4.

20) *First Apology*, xx. Cp. *Apol.* X.; *Exhortation to the Greeks*, XXII .

Platonism also shows up when he says creation “tuned into concert the discord of the elements, that the whole universe might be in harmony” and he speaks of “the Logos, son of the Nous which is the Father.”²¹⁾ Origen argues

...that God gave command about the vast things in the world and they were created, and that he who received the command was the divine Logos.²²⁾

Yet he disagrees with Plato over the eternality of matter and of uncreated souls, for nothing exists which has not received its existence from God.²³⁾

The Logos then is God’s intermediary both in creating and in governing the universe, as middle Platonism proposed. But difficulties presented themselves. The two-stage Logos of Philo and Tertullian, also accepted by Justin and Clement, was unacceptable to Origen. If before creation the Logos existed only as the totality of wisdom in God’s mind, and if at creation the Logos gained personal existence by being emitted into the world like a spoken Word that brings order out of chaos, then matter itself is chaotic and there is no inherent value to a material creation after all. Moreover the Logos would be neither co-eternal with God nor fully divine, but rather himself a created being. The ambiguous

21) *Exhortation to the Greeks*, I ; *Stromateis*, IV.

22) *Contra Celsum*, II . 31.

23) *On First Principles*, I .3.

relation of the Logos to Plato's One was transferred to the relation of Jesus Christ to the Biblical God, and precipitated an extended Christological controversy in the early church.

It involved two questions. First, the two-stage theory of the Logos, implied by Plato and made explicit in Philo, was essentially taken for granted by Tertullian, Justin Martyr and Clement of Alexandria. The Logos then was not an eternal being. On the other hand, Irenaeus and Origen maintained a one-stage theory, claiming that the Logos was generated from eternity. They prevailed, but in doing so posed a second question — whether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Logos was a necessary overflow of the divine being (a position taken by Ammonius Saccas and later Neoplatonist's), or whether it was by an act of God's free will. Arius took the latter view, claiming that there was a time when the Logos was not and that he was created by God out of nothing.

The resultant "Arian controversy" revealed that both alternatives led to the same result, that whether the logos was an emanation or a separate creation he was not fully God but was a subordinate being. Athanasius' solution, which the church finally adopted at the Council of Nicea in 325, was to find a third alternative, that the generation of the Logos was neither a necessity, as if God needed something and so was in some way deficient, nor an act of will. Rather God is generative by nature: it is in the very being of God that the Logos is eternally the divine Son. As the Nicene Creed puts it, he is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In effect, then, the Christological controversy arose from debate about whether the material creation is good. For if the Logos was either generated or created to order an otherwise chaotic world, then the Gnostics were essentially correct and the good has no intrinsic basis in the nature of things. Yet if the Logos is eternally and fully God, equally with the Father, and if he brought the entire creation into being *ex nihilo*, rather than shaping preexistent and recalcitrant matter, then the entire creation and even matter bears witness to its maker and his purposes, and that is good.

A distinction therefore begins to emerge between three views of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creation that we now identify as dualism, pantheism and theism. The dualist echoes the Gnostic strain that matter exists independently of God, that while it needs order and control it is itself uncreated. The pantheist pursues the Stoic and Neoplatonist direction that sees the material world along with everything else as emanating from the divine being and essentially one with it. The theist on the other hand distinguishes God from nature; God is self-existent but nature is given existence as well as order by God's free act of creating. For the dualist the creation is shaped *ex materia*; for the pantheist it emanates *ex deo*; for the theist it is an *ex nihilo* creation. The dualist regards matter itself as devoid of positive worth, the source of evil. The pantheist saw evil as a necessary lack in finite things, a privation unavoidably inherent in their finiteness. For the theist, however, the fact that God gives order in giving existence undercuts the Gnostic

dualism of material existence and rational order, while *ex nihilo* creation means that evil is not an inherent necessity in all finite existence. The way is open for a Christian view of good and evil such as Augustine spelled out more fully in the context of a Logos doctrine akin to that adopted by his predecessors.

A. Holmes 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 Christianity and Philosophy, IVP, 1960 / 영국판 1964
A Christian Perspective, 1975 / 영국판 1976
Christian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Craig Press, 1969.
Faith Seeks Understanding, Eerdmans, 1971, 남미번역, 1979.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Eerdmans, 1975, 개정판 1986.
All Truth is God's Truth, Eerdmans, 1977 / 영국판 1979. IVP.1983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1)
Contours of a World View, Eerdmans, 1983.(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 엠마오, 1985)
Ethics, Approaching Moral Decisions. IVP, 1984.
Shaping Character, Eerdmans, 1990.
"Christian Philosophy," Encyclopedia Britanica, 15th ed.
(Editor) War and Christian Ethics, Baker, 1975.